

고규홍의 '나무 생각'



겨울, 나무의 가시가 눈에 들어오는 계절

나무들이 모두 잎을 내려놓았다. 속살이 드러난 나무들이 생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겨울잠에 들 준비를 마쳤다. 소리도 움직임도 눈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살아가는 나무들 사이로 적막이 감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뭇가지와 줄기의 속살에서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을 바라보게 되는 계절이다.

나무의 속살에는 나무가 이 땅에서 살아오기 위해 애썼던 인간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앞으로 무성하게 덮여 있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나무 줄기와 가지에 무성하게 돌아 있는 가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줄기와 가지 등 식물의 몸체에 사나운 가시를 돋우며 살아가는 나무가 적지 않다. 가시는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몸체의 일부를 변화시킨 결과다. 가시를 돋운 거개의 나무는 무엇보다 먹을거리로 유용한 나무이기 십상이다. 초식동물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는 맛있는 잎과 어린 가지를 가진 나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역센 가시로 짐승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무들이 스스로 터득해 낸 지혜다.

두릅나무과의 읤나무도 그렇다. 이른 봄에 읤나무 가지에서 돌아나는 새순은 '개두릅'이라고 불리고, 그 래서 오래 읤나무를 '개두릅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

먹기도 하며, 연한 잎을 잘 말려 차로 우려내 먹기도 한다. 또한 '달 백숙'을 고아 낼 때 쓰이는 읤나무의 줄기 껍질도 먹을거리로 이용된다. 읤나무의 연한 가지를 넣어 고아 낸 달백숙은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며, 관절염과 요통에 일정한 효능을 가진다. 흔히 '읤나무 백숙'이라고 부르지만 나무의 이름은 읤나무다.

하림없이 읤나무는 채 자라기도 전에 잎은 물론이고, 줄기와 가지가 꺾이는 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래 읤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가시를 사납게 돋워 사람을 비롯한 초식동물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읤나무를 집의 울타리 가까이에 심어 키우거나 여의치 않으면 읤나무 가지를 얻어와 대문이나 대청 앞에 걸어놓았다. 집안에 읤나무가 있으면, 치 마나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던 귀신들이 가시에 걸리게 되고, 당황한 귀신들은 "이 집안에는 귀신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대단한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자기 보호를 위한 나무의 생존 전략이 사람살이에도 적용된 예다.

원래 읤나무는 주로 숲에서 자라는데, 사람살이의 한가운데인 마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에게 의해 사람의 마을에 들어온 것이다. 나무를 울타리에 심어 놓는 것뿐 아니라, 나무의 가지로

6각형의 노리개를 만들어 어린아이의 허리춤에 채워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병마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에 널리 퍼진 믿음이었다. 이 노리개를 '읍'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읤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흥미로운 것은 크게 자란 읤나무에서는 가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분명 읤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식물 몸체 전체에서 돌아나는 역센 가시라고 했지만, 일정한 크기로 자라난 읤나무에서는 가시를 볼 수 없다. 몸피를 어느 정도 키워서 초식동물의 위협을 벗어나게 되면, 가시를 스스로 떨어낸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도 굵어지고, 키도 커지고 나면, 가시가 아 니더라도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잎과 가지를 가시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가시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애연균면 살아남은 읤나무는 모든 가시를 버리고 의연한 자세로 사람의 마을에서 사람을 지켜 주는 나무로 도도하게 살아간다.

느리게 살아가는 나무의 생생살이이지만 꼼꼼히 살피면, 그 안에 담긴 삶의 안간힘과 치열한 생존 전략이 천천히 눈에 들어온다. 얼핏 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다. 무성했던 잎을 내려놓고, 속살을 드러낸 나무의 몸체에 담긴 생명의 알맹이를 살필 수 있는 계절, 바야흐로 겨울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의 꿈을 위하여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국책 사업이 충청 및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호남 지역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향후 동남아 진출을 고려하더라도 호남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필자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1996년 국내 최초로 동물 심도자살을 설립한 이래로 현재까지 3400여 마리의 세계 최대 동물 심도자 실험을 진행해 왔고, 대학병원 이름으로 심혈관계 스텐트를 개발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 경색증 환자의 치료와 심장혈관 중재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하는 심근 경색증 환자의 치료법과 예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국인 심근 경색증 등록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일간지에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주과학기술원 옆에 있는 전남 장성 나노산업단지가 최적지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당시 유두 석 장성 군수가 전남대 공과대학 강신영 교수의 권유로 연락을 해왔고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주었다. 2007년 12월에는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이 대선 공약으로, 2008년에는 총선 공약으로 선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후 2009년 장성군청에서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연 데 이어 2010년에는 강정재 전남대 총장과 함께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1년 7월 18일에는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의 꿈을 키워왔으나 이루지 못했다. 2017년 1월 1일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만담

해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에 대해 건의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같은 달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포럼에서 소개되면서 비로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 과제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장성 지역에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돼 현장 방문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계획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드디어 내년 예산에 토지 매입비와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의 꿈이 10여 년만에 이뤄지게 되었다.

국립 심혈관센터는 심혈관 질환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특성화된 최첨단 복합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내 의료산업 집적화는 물론 정부의 정책 반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역할은 크게 심혈관 질환 통합 관리,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임상, 예방 및 재활 치료, 심혈관계 의료산업 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첨단 의료 산업 기술 혁신 및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하게 될 우리나라 국립 심혈관연구센터는 비록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초 및 임상 연구로 시작해 그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향후 일본,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국립 심혈관센터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 및 후유증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적 기여는 물론 의료기기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호남의 희망이 될 것이다.

기고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의 이인삼각(二人三脚)



이천규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0년 제2차 공원구역 조정 당시, 주민들은 쌓여온 불편을 이유로 국립공원 마을의 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국립공원 공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받아들여 생태적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마을을 공원 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모든 마을이 공원 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외려 공원 구역의 존치를 요청한 마을도 있었다. 관매도와 영산도 같은 마을들은 공원구역 해제보다 국립공원의 동행을 선택했다. 국립공원 공단은 이렇게 존치를 바라는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명품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지정된 관매도와 영산도는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의 관계가 규제와 제한이 아닌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 관계임을 보여 주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고, 이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에는 현재 17개의 명품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명품 마을을 통해 시작된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의 상생의 물결은 이제 17개 명품 마을을 넘어 국립공원 내 존재하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공단은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각 마을에 맞는 마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상생 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또한 흑산도의 천촌(天村)과 암포(暗浦), 두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의 마을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천촌의 하천 일대를 정비하고, 마을 주택의 답을 푸른 빛깔로 도색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외지고 해가 들지 않는 암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야간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어두운 마을 길 곳곳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해 어둠을 밝혔고, 선착장에 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 주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진입부에는 마을의 이름을 세진 표지석을 세웠다. 더불어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고 쓰레기 집하장도 설치해 주민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듯 국립공원의 탄생부터 명품 마을 조성까지, 국립공원 공단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 부대끼고 얽히면서 상생의 결실을 함께해 왔다. 짝과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금세 발이 꼬여 버리는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처럼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의 동행도 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 협력하며 호흡을 맞출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립공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해 온 50여 년의 이인삼각 경기,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라는 결승점을 목표로 국립공원 공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社說

'전두환 재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나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선 고 공판이 나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씨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등 역사적 진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왜곡과 범행을 끊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은 어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 간 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의원과 조오섭 의원이 "5·18 진상 규명의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적 장"이라거나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국민과 공감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각각 생중계를 촉구했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역시 "전 씨의 행위는 5월 사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부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전두환 재판에 대한 생중계와 엄벌 요구가 빚발치는 것은 전 씨가 광주 학살의 사실상 최종 책임자인데도 반성이 나 사죄는커녕 왜곡과 범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관련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국민들이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전향적 검토를 바란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전 씨에 대한 마지막 단죄의 기회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코로나 여파로 식당도 호텔도 깊은 한숨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그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여름철 확산 추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확진자 수는 10월부터 잠잠해지다 11월 들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총확진자 수는 지난 7월 156명, 8월 193명, 9월 128명에 이어 10월에 30명을 기록했다. 11월 들어서는 어제 오후 1시 30분 기준 총 127명으로 여름철 확진자 수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한우 전문점의 경우 손님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연회장을 갖춘 호텔과 레스토랑 역시 연말 모임 예약 취소 등으로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 제조업체 위주로 구성된 광주-전남 성장사를 또한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14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한국전력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감소했다.

모두들 코로나로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강력한 방역활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모두 망연자실, 시름에 잠겼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를 위해 세금 감면이나 유예를 비롯해서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좁은 면적에 높게 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 외 공간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범죄 예방이나 쓰레기 처리 등 복잡한 문제들을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 거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다. 이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고층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양식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디서 절반 이상인 52.8%가 주택 구매 및 소유의 주된 목적을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실상 고층 아파트 건립의 원래 취지는 사라진 셈이다. 그리고 광주라는 대도시는 '존재 가치'가 사라진 희색빛 건축물로 뒤덮이고 있다.

도대체 도시의 건축물은 몇 층 정도 돼야 적절한 것인가? 아쉽게도 그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지난 2011년 7.4 규모의 지진으로 시가지가 완전히 파괴된 뉴질랜드의 크리스트처치라는 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립의 원래 취지는 주거 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아파트가 늘어나도 오히려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건설업체와 토지소유주는 많은 개발 이익을 얻게 됐지만, 분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부유층들은 마치 명품 가방 사들이듯 주머니에 채긴 뒤 더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긴다.

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6층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그 도시의 시장과도 시계형 전문가 등은 10만

낮지만 세련된

이제는 시민들마저도 대부분 고층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6000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고층이 아닌 중·저층 도시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도 이제 고층 아파트가 시민과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들의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낮지만 세련되고, 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로 복직하는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